

합평 월아주민 “음식 퇴비 악취 고통 안돼”

군 행정소송 패소로 ‘음식물 퇴비공장’ 승인

주민들 ‘설립 반대 추진위 결성’ 강력 반발

합평군 월아면 주민들이 마을내에 위치한 폐교부지에 들어서는 ‘축산·음식물 퇴비공장’ 설립(광주일보 2010년 03월 25일 10면)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월아면 주민들은 ‘옛 월아 복초등학교 부지에 축산·음식물 퇴비 공장이 들어서면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며 변형회장과 이장단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공장 설립 반대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는 한편 폐교 부지 진입로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내거는 등 공장설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재복 월아 농민회장은 “폐교 부지와 마을 간 300~500m 떨어져 있어 퇴비공장이 들어서면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받을 것”이라며 “당초 해당 업체가 감지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주민 동의를 받았다가 사업 변경을 통

해 축산·음식물 퇴비 공장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합평군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사업승인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퇴비공장 승인이 불가피했다”며 “주민과 업체간 큰 충돌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부취재본부=황윤기자 hwang@



완도 농수특산물 설 판촉 42억 매출 ‘대박’

설 명절기간 동안 완도 농·수·특산물이 대박을 터뜨렸다. 26일 완도군에 따르면 설 명절 기간 동안 대도시 직거래센터 및 대형유통센터, 온라인 브랜드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42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우선 우체국 소포물을 통해 26억5000만원의 판매고를 달성했으며, 백화점과 이마트, 농수산물 유

통센터 등 전국 대형유통업체 특관 행사에서 5억2000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또 서울 서대문구·강남구 등 자매결연 단체를 비롯한 서울 도시철도 공사 등의 대도시 관측활동을 통해 2억4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특히 완도군 이송과 옥선, G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지난해 설 대비 39.3% 신장된 8억원의 판매실

적을 올렸다.

완도군 관계자는 “당초 농·수산물 경쟁력저하와 가계부채 증가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특산물 판매·소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형 유통센터 특관 행사 등 적극적으로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대성황을 이뤘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기자 ejchung@

무안군, 무안을 지반침하 보강 개선 공사 특정업체와 불법하도급 계약 말짱

무안군이 무안을 지반침하 보강 개선공사와 관련 특정 업체와 불법 하도급 공사계약을 하는 등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무안군의회 정철주(민노당) 의원은 최근 제1차회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이 B토건과 무안을 교촌·상남지구 ‘보링 그라우팅 공사’ 불법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과다한 설계변경을 해 공사 금액이 9억원 증액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무안을 교촌리와 성남리 일대 기초 암반이 용해가 쉽게 일어나는 석회암으로 구성돼 있어 지반침하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땅속에 물과 배합한 시멘트 원액(엔토나이트)을 주입해 굳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착공해 이달 말 완공예정이다.

당초 이 사업은 ‘보링 그라우팅 공사’ 전문건설업체인 목포 Y토건이 낙찰받았으나 Y토건은 다시 같은 업종

의 무안 B토건에 하도급을 주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는 같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대상지 추가확대로 교촌지구 공사비가 당초 28억원에서 38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총 9억2000여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됐다.

모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그라우팅 공사업 업체가 그라우팅 업체에 하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불법 하도급”이라며 “무안군에서 ‘산업건설 29조 3항’을 기준으로 한 계약은 특혜의혹을 살 만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공사의 특성상 원활한 시공을 위해 B토건과 함께 공동으로 무안을 교촌, 성남지구 지반침하 보강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하도급 계약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목포 대양산단 조성 하반기 착수

시-포스코 건설 등가 협약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올 하반기 착수된다.

목포시는 지난 25일 포스코건설, 금호건설, 한국투자증권과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주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대양산단은 대양동 축구센터 인근 156만2000㎡(47만평)에 조성된다. 시는 감정평가와 보상을 거쳐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2015년 조성공사를 끝내고 2017년까지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시는 대양산단이 조성되면 5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유치해 ▲생산유발효과 255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354억원 ▲1만여 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목포 기독교병원 우수의료기관 인증마크 획득

목포 기독교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의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기독교병원은 이달부터 인증 유효기간인 2016년 1월 10일까지 4년간 우수 의료기관으로서 인정받고, 공공 보건의료사업 참여시 기금부여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병원급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목포 기독교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직원안전 관련 5개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404개 전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목포대 사회복지센터 지역서비스 ‘우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센터 ‘우리아이 사업단’을 포함한 5개 서비스가 우수서비스로 선정됐다.

목포대학교 사회복지센터(센터장 권규영·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가 최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수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11~12월 전국 740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2340개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목포대 사회복지

센터 ‘우리아이 사업단’을 포함한 5개 서비스가 우수서비스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목포대 사회복지센터는 사업의 우수성, 시장성, 지속가능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했다. 특히 사회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 아동 정서지원서비

스’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2월중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물론 예산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고,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시 우수사례로 발표할 기회도 갖게 됐다.

목포대 사회복지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학습지원과 상담활동, 사회참여 일자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전 북

2월에 가볼만한 곳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한국관광공사 선정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사진)가 최근 한국관광공사 추천, ‘2월의 가볼만한 곳’에 선정됐다.

한국관광공사는 ‘겨울철 야외 레저 체험’이라는 테마로 ‘2월의 가볼만한 곳’으로 바래봉 눈꽃축제를 비롯해 ▲‘눈 체험의 메카’에서 미리 보는 동계올림픽, 평창(강원 평창) ▲말의 귀를 닮은 기이한 봉우리, 진안 마이산(전북 진안) ▲식물원에서 즐기는 특별한 겨울캠핑(충남 공주) ▲사격하고 쥘라인 타고, 문경의 겨울은 즐겁다(경북 문경) ▲따끈따끈한 먹을

거리 체험이 가득! 양평 수미마을(경기 양평) 등 6곳을 각각 선정했다.

지리산 서쪽 고트머리에 봉긋하게 솟은 바래봉은 4~5월에 최다 인파가 몰리는 국내 최대의 철쭉 군락지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바래봉 눈꽃축제’는 눈썰매, 얼음썰매, 눈싸움, 연날리기 등 다양한 겨울체험을 할 수 있다. 또 겨울 지리산의 아름다움을 본격적으로 만끽하고 싶다면 눈꽃이 곱게 피어난 등산로를 따라 바래봉 정상까지 트레킹을 할 수도 있다.

한편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는 2월 25일까지 계속된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최근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를 찾아 눈썰매를 즐기고 있다. 축제는 다음달 25일까지 열린다.

익산시 ‘백제 무왕’을 만나다

역사·종교문화 등 여행지 문화관광사이트 통해 소개

“고도(古都)익산을 찾아 세계 유산의 향기를 느껴보자.”

익산시는 ‘문화관광’ 사이트(iksan.gobj.net)를 통해 교과서 속 수학여행지는 물론 역사문화, 4색 종교문화, 체험여행, 익산둘레길 등 테마여행지 소개하고 있다.

익산은 백제왕도로서 궁성, 사찰, 산성, 능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고도이다.

마릉지, 서동생가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 제석사지, 왕궁리유적, 익산쌍릉 등 제30대 무왕(600~640) 서동의 탄생과 사랑, 황금기가 있는 곳이다.

지난 1997년 개관한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 들어서면 미륵사

축소 모형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

미륵사지가 세워진 곳은 무왕과 왕비인 선화공주가 미륵산(웅화산)에 사는 지명법사를 찾아가던 도중 만난 미륵삼존불이 출현한 자리다.

인력 양성사업은 크게 ‘전략산업 분야 명장(名匠)육성 사업’과 ‘산·학·관 커플링 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명장육성 사업’은 ▲전문 분야 자격증 취득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 과정 운영 ▲실습기회 확충 ▲기업체와 프로그램 협력 운영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산·학·관 커플링 사업’은 기업의 기능인력 수요에 적합한 전문기능 인력양성을 목표로 도와 기업, 학교가 공동 수행하고 수요생의 참여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농업 1개 과정 30명, 공업계 2개과정 60명을 양성 목표로 잡았다.

특성화고 ‘명장’ 양성 본격 추진

도, 농업계 30명·공업계 60명 목표

전북도는 관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고 미래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력 양성사업은 크게 ‘전략산업 분야 명장(名匠)육성 사업’과 ‘산·학·관 커플링 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명장육성 사업’은 ▲전문 분야 자격증 취득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 과정 운영 ▲실습기회 확충 ▲기업체와 프로그램 협력 운영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산·학·관 커플링 사업’은 기업의 기능인력 수요에 적합한 전문기능 인력양성을 목표로 도와 기업, 학교가 공동 수행하고 수요생의 참여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농업 1개 과정 30명, 공업계 2개과정 60명을 양성 목표로 잡았다.

도내에는 16개의 특성화 고교가 있다.

특성화 고교는 정규과정에서 배우기 어려운 최신 자격취득 과정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래 조기 취업을 원하는 고교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고창지역을 오가는 농·어촌버스 운행횟수가 줄어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고창군은 버스승객의 감소와 유가 인상 등으로 배차간격의 재정악화가 심화해 30일부터 감회 운행에 들어간다. 현재 89노선 363회 운행횟수 중 22노선 38회(전체 8%)가 줄어들게 된다.

군은 대당 적정승객이 16명인 버스의 이용객이 대당 2~3명에 불과, 버스업체가 연간 25억원의 적자를 본다

이성수 전북도 민생일자리 본부장은 “최근 고졸 취업이 청년취업의 핵심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고졸학력으로 기술을 연마,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고창 농어촌버스 감축 운행에 주민 불편

고창지역을 오가는 농·어촌버스 운행횟수가 줄어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고창군은 버스승객의 감소와 유가 인상 등으로 배차간격의 재정악화가 심화해 30일부터 감회 운행에 들어간다. 현재 89노선 363회 운행횟수 중 22노선 38회(전체 8%)가 줄어들게 된다.

군은 대당 적정승객이 16명인 버스의 이용객이 대당 2~3명에 불과, 버스업체가 연간 25억원의 적자를 본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년째 만성적자를 보는 버스업체의 재정악화를 줄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완산도서관 초등생에 유물로 배우는 역사교육

전주 시립도서관(관장 안병수) 완산도서관은 27일 초등학교 2~4학년생을 대상으로 ‘유물로 배우는 어린이 역사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완산도서관은 3회에 걸쳐 ‘신사시대와 역사여행 떠나요’라는

주제 아래 ▲구석기 신석기시대(석기체험) ▲반구대 암각화(관화 찍기) ▲고인돌과 거푸집(거푸집을 응용한 초코칩 만들기) ▲철기시대 고조선(계급사회 게임)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보건소 한방 중풍 예방교실 운영

정읍시 보건소는 오는 4월까지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을 직접 방문해 ‘한방 중풍 예방교실’을 운영한다.

‘한방 중풍 예방교실’에서는 건강검진(혈압, 혈당 등), 골다공증 검사, 체성분 검사와 함께 한방 예방하는 생활습관, 계절에 따른 한의학적 양생법 교육을 실시한다.

또 기공제 조 강사를 배치해 주 2회씩 3개월간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근력을 증강시켜주는 중풍예방 기공제 조도 갖는다.

정읍시 보건소 관계자는 “한방 순회 진료를 통해 한방약과 침 등의 한방보전 서비스를 제공,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시 대야마을 농로포장 사업 추진

김제시가 김제·완주 경계지역인 금구면 대야리 대야마을의 30년 주민 숙원사업인 농로포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제시는 “양 지자체가 사업비 공동부담을 통해 금구면 대야리와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를 잇는 농로 포장공사를 추진한다”고 26

일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전북도·완주군과 협의회를 2회 개최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지역민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울 순창장류축제 11월 2~4일 개최키로

순창 장류축제추진위원회는 최근 순창장류축제의 올해 개최시기와 추진방향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최근 열린 자체평가보고회에서 올해 장류축제를 강전산 단풍절정기인 11월 2~4일 3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 장류

축제와 연계한 ‘소스 전시회’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열린 ‘순창장류축제’가 116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